

2011년 10월호

뚝은감 관측 결과(案)

2011. 9. 5(월)

영동군 농업기술센터

재배동향 및 전망

■ 작년대비 전반적 작황 안 좋아

- 금년도 뚝은감 작황은 작년대비 좋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, 올해 초 동해·냉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시작된 장마로 불완전 수정, 낙과량 증가 등 뚝은감 생육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.

■ 지역별 작황 상황

단위 : %

구 분		전국	경남	경북	전남	전북	충북
작년대비	좋음	13.8	0.0	21.6	0.0	16.7	26.7
	보통	38.1	36.4	39.2	33.3	33.3	40.0
	나쁨	48.1	63.6	39.2	66.7	50.0	33.3
계	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주 : 뚝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(2011.8.25~8.30)

주 : 전국 값은 2010년 뚝은감 전국 생산량 가중치 적용 지수임

- 경남 하동, 산청과 전남 영암, 충북 영동은 낙과량이 작년대비 10~20%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전남 영암지역은 제9호 태풍 「무이파」의 영향으로 잎의 손상과 낙과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.
- 병해충 피해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병해충은 탄저병, 각지벌레, 노린재 등으로 조사되었다. 전남 영암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탄저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■ 지역별 낙과 및 병해충 피해

단위 : %

구 분		전국	경남	경북	전남	전북	충북
작년대비	낙과	9.0	15.0	3.4	20.0	3.3	10.3
	병해충	6.7	10.0	1.1	20.0	5.8	2.0

주 : 뚝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(2011.8.25~8.30)

주 : 전국 값은 2010년 뚝은감 전국 생산량 가중치 적용 지수임

■ 올해 생산량 작년대비 감소 전망

- 현재 착과량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올해 생산량은 작년대비 10.7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 경남과 전남에서는 낙과 피해가 커서 생산량이 25%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10년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충북 생산량은 회복세를 보여 17.3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 경북과 전북 지역은 작년보다 소폭 감소,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■ 지역별 생산량 증감 전망

단위 : 톤, %

구 분	전국	경남	경북	전남	전북	충북	기타
2010년 생산량(톤)	101,950	13,649	56,050	22,665	2,632	5,803	1,151
2011년 생산량 증감 전망(%)	-10.7	-25.5	-5.0	-25.0	1.7	17.3	-

주 : 뽕은감 주산지 표본임가 조사치(2011.8.25~8.30)

주 : 전국 값은 2010년 뽕은감 전국 생산량 가중치 적용 지수임

가격동향 및 전망

■ 꽃감가격 작년대비 상승

- 8월 꽃감 도매가격(상품기준)은 작년 동기대비 1.6% 상승, 소비자가격(중품기준)은 4.4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 지난해 동해로 원료감 공급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올해 꽃감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다.

■ 10월 꽃감가격 보합세 전망

- 12월 햇꽃감 출하를 대비하여 재고물량을 소진해야 하므로 10월 꽃감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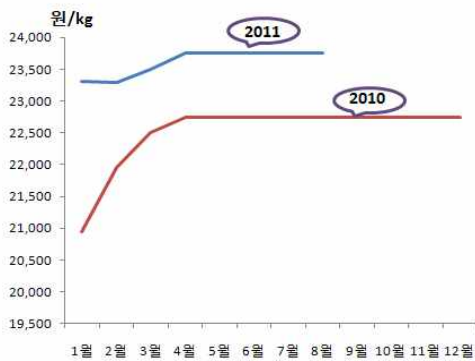
■ 꽃감 월별 가격동향

단위 : 원/k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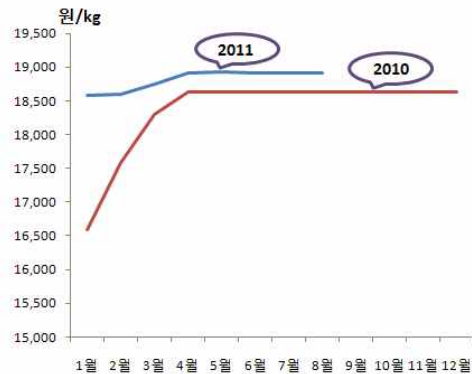
연 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소비자가격 (중품)	2011	23,316	23,286	23,492	23,750	23,758	23,750	23,750	23,750	-	-	-	-
	2010	20,940	21,962	22,508	22,750	22,750	22,750	22,750	22,750	22,750	22,750	22,750	22,750
도매가격 (상품)	2011	18,583	18,604	18,745	18,920	18,928	18,920	18,920	18,920	-	-	-	-
	2010	16,590	17,593	18,307	18,630	18,630	18,630	18,630	18,630	18,630	18,630	18,630	18,630

자료 : 경동시장

꽃감 소비자가격 (중품)



꽃감 도매가격 (상품)



수입 현황

■ 8월 꽃감 누계 수입량 작년대비 소폭 감소

- 8월까지 누적 꽃감 수입량은 988톤으로 작년 동기대비 15.0% 감소하였으며 금액은 232만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5.6% 증가하였다. 중국산 꽃감의 품질이 좋아지고 중국내 인건비가 상승하여 중국산 꽃감의 수입단가는 매년 상승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■ 10월 꽃감 수입량 거의 없을 듯

- 연초에 수입된 꽃감 물량이 시장에 남아있으며 추석 후 꽃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꽃감 수입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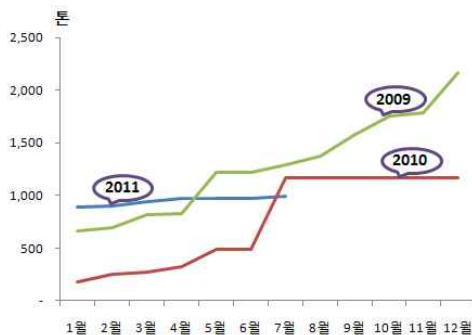
■ 꽃감 월별 수입실적

단위 : 천USD, 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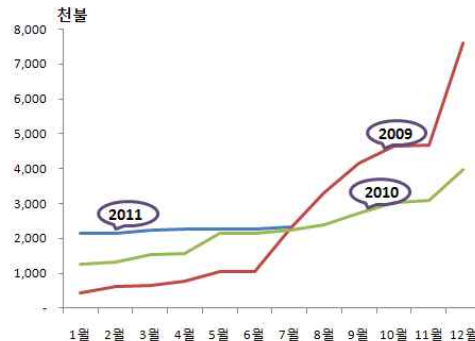
구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합계	
2011	금액	2,139	13	81	41	-	-	46	-					
	중량	894	6	45	23	-	-	20	-					
2010	금액	449	186	18	113	286	-	1,145	-	-	-	-	2,197	
	중량	178	78	11	60	157	-	679	-	-	-	-	1,165	
2009	금액	1,266	52	218	21	588	-	93	145	350	309	37	897	3,976
	중량	667	28	120	10	391	-	71	84	211	177	24	383	2,166
2008	금액	3,931	523	230	2,416	78	38	-	39	-	0	38	854	8,147
	중량	1,691	316	143	1,601	46	19	-	23	-	0	22	430	4,291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, 관세청(www.customs.go.kr)

꽃감 수입 누계량



꽃감 수입 누계액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, 관세청(www.customs.go.kr)

종합 전망

■ 작년보다 전반적 작황 안 좋아

- 올해 뚝은감 작황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 올해 초 동해·냉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시작된 장마와 8월 태풍의 영향으로 불완전 수정, 낙과량 증가 등 뚝은감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이다. 낙과량은 작년보다 9.0% 증가하였고 병해충 피해는 작년보다 6.7%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

■ 올해 생산량 작년대비 감소 전망

- 현재 착과량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인 올해 뚝은감 생산량은 작년보다 10.7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 낙과 피해가 큰 경남과 전남에서 2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북에서 5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. 반면 작년에 생산량이 크게 줄었던 충북에서는 회복세를 보여 17.3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■ 10월 꾀감가격 보합세 전망

- 12월 햇꾀감 출하에 대비하여 재고물량을 소진해야 하므로 10월 꾀감가격은 보합세로 전망된다.

■ 10월 꾀감 수입량 거의 없을 듯

- 추석 후 꾀감 수요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꾀감 수입량은 작년과 같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.

단신

곶감용 감의 수확

○ 곶감용 감은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당분함량이 높다. 하지만 수확이 너무 늦어지면 과실이 연화되고 자칫하면 저온피해를 입기도 한다. 반대로 미숙과를 수확하여 곶감을 제조하면 곶감의 색이 나빠지고 단맛도 떨어진다.

○ 맑고 투명한 붉은색 곶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실전체가 등홍색으로 잘 착색된 감을 골라 여러 번에 나누어 수확하는 것이 좋다. 여러 번에 나누어 수확하기 어려워 1~2회에 수확해야 한다면 성숙정도에 따라 4~7일정도 후숙하여 적숙되면 곶감을 깎는다.

자료: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조두현 박사